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한 양측성 기종성 요로 감염 2예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강건우 · 김태원 · 이인희 · 안기성

Two Cases of Bilateral Emphysematous Urinary Tract Infection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Gun Woo Kang, Tae Won Kim, In Hee Lee, Ki Sung Ah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기종성 요로 감염은 발효성 가스 생성 균 감염에 의해 신 실질과 신 주위 조직에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는 비뇨기계의 급성 화농성 질환으로 주로 당뇨병 환자에서 나타난다. 대개 일측성 병변으로 발생하며 양측성 병변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이에 연자들은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한 급성 신부전이 합병된 양측성 기종성 요로 감염 2예를 경험하고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55세 여자 환자로 10일간의 왼쪽 옆구리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15년 전부터 당뇨병, 고혈압으로 약물 투여 중이었으며, 내원 당시 혈압 150/80 mmHg, 맥박 11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7.8°C이었으며, 양측 늑골-척추각 압통이 있었다. 말초혈액 검사상 백혈구 23,000/mm³, 혈색소 9.0 g/dL, 혈소판 208,000/mm³, C-반응 단백 (CRP) 371 mg/L, 요 검사상 WBC 10-20/HPF, RBC >30/HPF, 혈청 생화학 검사상 BUN/Cr 50.5/4.0 mg/dL, 요 및 혈액 배양 검사에서 모두 Escherichia coli (E. coli)가 검출되었고,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 (CT)에서 가스 형성을 보이는 양측성 기종성 신우염, 요관염 및 방광염 소견이 관찰되었다. 균 감수성 결과에 따라 항생제 (ceftriaxone, ciprofloxacin) 정주하였으며, 패혈증에 의한 급성 신부전 소견이 보여 수액 요법을 함께 시행하였다. 이후 백혈구 6,700/mm³, CRP 6.6 mg/L, BUN/Cr 8.0/0.6 mg/dL로 호전보이면서 추적 요 배양 검사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추적 시행한 복부 CT에서도 기종성 병변도 호전되어 경구 항생제 유지하면서 외래 경과 관찰 중이다.

증례 2: 62세 여자 환자로 7일간의 전신 쇠약감, 의식 장애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2년 전부터 당뇨병성 만성 신질환 진단 하에 외래 통원 치료 중이었다. 내원 당시 혈압 130/90 mmHg, 맥박 9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5°C이었으며, 양측 늑골-척추각 압통은 저명하지 않았다.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7,400/mm³, 혈색소 8.5 g/dL, 혈소판 347,000/mm³, CRP 10.7 mg/L, 요 검사상 WBC >30/HPF, RBC 5-10/HPF, 혈청 생화학 검사상 BUN/Cr 65.8/6.8 mg/dL이었으며 요 배양 검사에서 E. coli 검출되었고 복부 CT 시행하여 양측성 기종성 신우염, 요관염으로 진단하였다. 항생제 (ceftriaxone, ciprofloxacin) 정주 및 수액 요법에도 불구하고 요독 증상이 지속되어 혈액투석 (총 6회)을 시행하였다. 이후 전신 증상 및 신기능 호전 보이면서 요 배양에서 더 이상 균이 검출 되지 않았으며 추적 시행한 복부 CT에서도 기종성 음영이 소실되었다. 치료 후 4주째 투석 치료없이 경구 항생제 유지하면서 경과 관찰 중이다.

Key Words: 당뇨병, 기종성 요로감염

Diabetes Mellitus, Emphysematous Urinary Tract Infection